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와 예측요인 탐색*

권은영** · 정현희***

초 록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와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중 1 패널 7차년도 응답자 중에서 4년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478명(53.7%), 남학생 412명(46.3%) 총 890명이었다. 자료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은 다중목표 높은형(16.7%), 관계 추구형(31.7%), 다중목표 평균형(17.4%), 다중목표 낮은형(31.8%), 관계 외면형(2.4%)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가 있었다. 다중목표 높은형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다중목표 낮은형은 우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셋째,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시기의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진로정체감, 성취가치, 민주적 양육 태도, 교우관계, 공동체 의식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은 다양한 추구 양상을 보이며,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는데 개인차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 개입을 위한 방안과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학 신입생,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심리적 적응, 예측요인, KCYPS 2010

* 본 논문은 권은영(2020)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2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됨.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제1저자

***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hhchung@kmu.ac.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삶의 전환기로, 대학생은 새로운 발달 과업과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Anderson, Goodman & Schlossberg, 2012). 특히 대학입학 후 첫 학기는 학업과 인간 관계, 생활면에서 적응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대학생으로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박지은, 2018). 이로 인해 대학 신입생은 대학 진학에 따른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적 전환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 학령인구의 급감과 중도탈락률 증가로 인해 대학 신입생의 학교생활 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홍승이, 2018).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입학 후 1년간의 경험이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김은주, 김민규, 2014; 홍성연, 2016). 이에 따라 적응적 삶의 근간이 되는 생애목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은석, 송경희, 2019; 조은별, 윤영, 신종호, 2019; Palfai, Ralston & Wright, 2011).

생애목표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근거하여 수행되어 왔다(임성애, 이은주, 2016; Pintrich & Schunk, 2002). SDT는 인간을 성장과 통합을 지향하는 유기체라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에 의해 개인의 행동은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Ryan & Deci, 2002). SDT는 인지평가이론, 유기적 통합이론, 인과지향성이론과 기본심리욕구이론의 4가지 미니이론으로 구성된다. 생애목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SDT의 다섯 번째 독립된 미니이론으로 목표내용이론(goal contents theory)이 제안되었다(김아영, 2010).

목표내용이론에서는 행동조절과 기본심리욕구의 기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생애 목표를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Kasser & Ryan, 1993, 1996). 내재적 목표는 기본심리욕구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기수용, 소속감, 공동체 의식, 신체적 건강 등이 해당된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기본심리욕구에 대해 외생적이며, 경제적 성공, 매력적인 외모, 인기 등이 포함된다. 생애목표를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분류한 초기 연구에서는

내재적 목표가 긍정적 정서 및 적응과 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 외재적 목표는 긍정적 정서 및 적응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Niemiec, Ryan & Deci, 2009).

그러나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를 상반된 개념으로 바라본 Kasser와 Ryan(1993, 1996)의 관점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Vansteenkiste, Niemiec & Soenens, 2010). 이와 같은 관점으로는 생애목표와 관련된 모든 요인을 설명할 수 없으며, 내재적 목표는 긍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고 외재적 목표는 부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Brdar, Rijavec & Miljković, 2009). 이에 Grouzet 외(2005)는 기존의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에 자기 초월적 목표와 물리적 자기 목표를 추가한 생애목표의 새로운 2차원 구조를 제시하였다. 생애목표의 2차원 구조는 목표내용의 다양성과 집단 내 개인별 특성에 따른 생애목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Van Hiel & Vansteenkiste, 2009).

기존의 선행연구는 생애목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나 효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변인중심 접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성수, 2015; 노현종, 손원숙, 2014). 그러나, 변인중심 접근은 집단 내 이질성을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임성애, 이은주, 2016). Ratelle, Guay, Vallerand, Larose와 Senécal(2007)은 집단 내 이질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중심 접근이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다양한 생애목표 내용과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목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유지, 이은주, 2018; Milyavskaya & Werner, 2018). 최근 목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목표를 경쟁적인 관계로 가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Wormington & Linnenbrink-Garcia, 2017).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기존의 변인중심적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다중목표 추구 양상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관련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Conley, 2012; Jang & Liu,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생애목표 추구 양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생애목표 추구 수준에 따라 대부분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은 3~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3과 고2 시기 청소년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고목표형, 관계지향 평균형, 성공외면 평균형, 저목표형의 4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정유지, 이은주, 2018). 남녀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생애목표 고조형, 성공목표 부족형,

성공목표 추구형, 생애목표 저조형으로 분류되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애목표 고조형, 성공목표 부족형, 가족성공 추구형, 생애목표 저조형으로 분류되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4개의 생애목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박은정 외, 2016).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는 생애목표 추구형, 생애목표 보편형, 생애목표 저발달형으로 분류되었다(김은석, 송경희,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기의 생애목표가 뚜렷하게 결정되기 보다는 미분화된 양상으로 생애목표 전반적인 수준의 차이로 3~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뚜렷한 생애목표 발달은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구성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워야하는 발달단계인 후기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자신의 삶과 목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의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행할 때 삶의 장면이 확장되고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의 생애목표 발달에 대한 관심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관련 연구는 생애목표 자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생애목표와 자기결정성동기, 부모의 양육태도 등 다른 변인과의 조합에 의한 결과를 살펴보았다(임성애, 이은주, 2016; 임정아, 조아미, 2018; 정유지, 이은주,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학생의 생애목표 발달특성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조은별 외(2019)는 생애목표 내용의 사회적 수준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을 살펴본 연구에서 평균목표 집단, 관계추구 집단, 고-관계목표 집단, 고-관계·사회목표 집단의 4개 유형으로 보고하였고, 사회지향 수준이 높은 생애목표의 발달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생애목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비율(79%)이 지나치게 높고 시간이 경과된 자료(2011, 2012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성별 구성의 균형, 최근 동향 등을 반영하여 다중목표 관점에서 대학생의 생애목표 발달양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생애목표는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성애, 이은주, 2016; Sheldon & Kasser, 1998). 기존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내재적 목표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과는 정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외재적 목표는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정적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애목표를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이루어진 단일차원의 관점에서 변인중심 접근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유지와 이은주(2016)는 대학생의 자기결정 동기유형과 생애목표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동기 수준과 생애목표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은석과 송경희(2019)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생애목표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심리적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환경체계 속에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 간다. 그러므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포함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생애목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이 누적되어 개인마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학 이전의 선행 시기를 기준으로 예측요인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개인적 예측요인으로 성별,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성취가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성별 요인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생애목표 추구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성수, 2015; 장희선, 윤정이, 2016). 또한 자아정체감이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잠재 전이 가능성에 대한 예측요인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관계지향 평균형에서 고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지, 이은주, 2018). 진로정체감도 생애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이다. 진로정체감은 성장목표, 사회기여목표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희선, 윤정이, 2016).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고목표형은 내재적 목표지향형과 외적 성취지향형과 비교했을 때 진로정체감의 차이가 없지만, 저목표형보다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효연, 김혜지,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아정체

감과 진로정체감이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취가치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생애목표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 확인되었다(오민아, 허재은, 조윤정, 2019). 중학교 시기의 성취가치는 고등학교 시기의 네 유형으로 분류된 생애목표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민아 외, 2019).

한편, 환경적 예측요인으로 민주적 양육태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장기적 목표와 목표의 지향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lliams, Cox, Hedberg & Deci, 2000). 그러나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프로파일 분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생애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계순과 서인해(2016)는 생애목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생애목표지향 정도 및 목표내용에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생애목표가 공동체의식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노현중, 손원숙, 2014; 이현주, 채유정, 2014; Headey, 2008). 조한익과 김영숙(2016)은 청소년들의 생애목표를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로 나누었을 때, 외재적 목표는 공동체의식에 부적 영향을, 내재적 목표는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통해 생애목표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생애목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는 발달특성 상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개인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양상을 개인중심 접근으로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 초기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학 신입생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현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유형과 그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와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생애목표에 대해 변인중심의 접근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어,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유형을 분류하여 개인적인 차이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목표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양상을 분류한 후, 이러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환기에 놓여 있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과 대학차원에서 대학 신입생의 적응을 지원하고 생애목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2.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이하 KCYPS 2010)의 중1 패널 7차년도(2016년) 조사에서 4년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총 890명(여학생 478명, 남학생 412명) 대상자들이 응답한 4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2013년), 5차년도(고등학교 2학년, 2014년), 7차년도(대학교 1학년, 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2010의 중1 패널 조사대상은 2010년을 기준으로 교육부의 학교통계 표집틀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 집락표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2010년 1차년도 중학교 1학년 패널 표본은 전국 총 78개 학교의 2,351명이었다. 2016년 7차년도에는 1,88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원표본 유지율 80%).

2. 측정도구

1) 생애목표

생애목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미국 교육종단연구(U. 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문항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자료 중 대학교 1학년 시점(7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15문항(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점 리커트식 척도(1점=매우 그렇다, 2점=그런 편이다, 3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 양상을 개인적 접근으로 통합적, 다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 구성요인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요인분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다른 문항들과 공통분이 부족한 2문항(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을 제거하였다(장승민, 2015).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4요인 모형(RMSEA=.035, CFI=.989, TLI=.974)과 5요인 모형(RMSEA=.025, CFI=.996, TLI=.986)이 적합한 것으로 탐색되었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회전(Geomin) 후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4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회전된 4요인 모형에서 부하량이 낮은 1문항(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을 제거한 후, 본 연구에서는 최종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류된 하위 구성요인은 선행연구(오민아 등, 2019; 임정아, 조아미, 2018)를 참고하여 여가와 안전, 새로운 도전, 관계지향, 사회기여로 재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역점수로 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으며, 하위 구성요인 중 '여가와 안전'의 내적 일치도가 다소 낮으나 종단연구 특성상 문항수의 제한과 대규모 연구의 타당화된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수렴하여 사용하였다.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별 문항과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표 1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별 문항 및 내적 합치도

하위 구성요인	문항내용	내적 합치도
1요인 (여가와 안전)	3. 안전한 동네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4.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51
2요인 (새로운 도전)	1.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3
3요인 (관계지향)	10.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12. 부모님,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4.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84
4요인 (사회기여)	5.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8.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9.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67

2)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대학교 1학년 시점(7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자아존중감 척도의 일부 문항(예: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을 역점수로 변환하였다. 우울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가운데 10문항(예: 기운이 별로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10문항(예: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는 김신영 외(2006)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자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한 내용 등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3) 예측요인

(1) 개인요인

본 연구에서 개인적 예측요인에 해당하는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성취가치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5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자아정체감 척도의 일부 문항(예: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을 역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송현옥(2009)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8문항(예: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7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공인규(2008)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8문항(예: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성취가치 측정도구는 양명희(2000)가 개발하고 김세영(2006)이 재구성한 문항 중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예: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으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환경요인

환경적 예측요인에 해당하는 민주적 양육태도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점(4차년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점(5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역시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교우관계 척도의 1문항(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민주적 양육태도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검사 문항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에 해당하는 10문항(예: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교사관계 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중·고등학교 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기반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교우관계 척도는 교우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5문항(예: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으로, 교사관계 척도도 5문항(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교우관계는 .61, 교사관계는 .78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 척도는 권혜원(2004)의 민주시민 의식 조사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구성한 척도이며, 4문항(예: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추구 양상을 개인중심 접근으로 파악하기 위해 Mplus 8.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정보 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와 k 개 집단 모형과 $k-1$ 개 집단 모형 비교검증 지수인 LMR LRT, BLRT,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Entropy값, 그리고 집단 내 분류 비율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정보 적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LMR LRT와 B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 k 와 $k-1$ 두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잠재프로파일 수가 k 인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채택된다. Entropy 지수는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한다. 범위는 0~1 사이이며, 대략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이다(Muthén, 2004). 본 연구에서 집단 내 분류비율은 최소 집단의 비율을 1% 이상 기준으로 살펴보았다(Jung & Wickrama, 2008). 또한,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과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검증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요인 탐색은 준거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집단에 속할 승산비(odds ratio)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은 표 2와 같다. 생애목표 하위 구성 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가와 안전은 우울, 자아정체감, 교사관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 변수들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2

연구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

(N= 89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45**	1												
3	.395**	.229**	1											
4	.352**	.337**	.501**	1										
5	-.032	-.162**	-.193**	-.172**	1									
6	.161**	.267**	.247**	.177**	-.636**	1								
7	.037**	.185**	.165**	.169**	-.592**	.599**	1							
8	.050	.239**	.123**	.120**	-.268**	.341**	.254**	1						
9	.119**	.176**	.127**	.150**	-.123**	.251**	.109**	.460**	1					
10	.114**	.079*	.153**	.088**	-.129**	.175**	.166**	.148**	.171**	1				
11	.070*	.077*	.082*	.110**	-.206**	.234**	.226**	.199**	.159**	.163**	1			
12	.140**	.113**	.164**	.136**	-.223**	.273**	.196**	.364**	.283**	.290**	.253**	1		
13	.055	.094**	.099**	.105**	-.210**	.204**	.177**	.327**	.239**	.332**	.208**	.426**	1	
14	.066*	.139**	.100**	.215**	-.169**	.170**	.130**	.293**	.276**	.202**	.180**	.455**	.374**	1
평균	3.35	2.96	3.51	3.19	1.82	2.97	2.87	2.71	3.02	2.98	3.01	3.18	2.92	3.02
표준 편차	.450	.560	.466	.429	.528	.437	.555	.383	.556	.515	.431	.344	.548	.486
왜도	.016	-.175	-.511	-.104	.341	-.304	-.070	.144	.011	-.574	-.260	.170	-.137	.042
첨도	-.676	.125	-.569	.336	-.158	.337	.548	.210	-.601	1.233	1.317	.738	.298	.885

주1. 1. 여가와 안전 2. 새로운 도전 3. 관계지향 4. 사회기여 5. 우울 6. 자아존중감
7. 삶의 만족도 8. 자아정체감 9. 진로정체감 10. 성취가치 11. 민주적 양육태도
12. 교우관계 13. 교사관계 14. 공동체의식

주2. 평균은 각 변인 문항들의 평균임.

* $p < .05$, ** $p < .01$

2.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분석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지수(AIC, BIC, SABIC)의 경우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함에 따라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4개에서 5개로 증가할 때 정보지수가 낮아지는 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모형비교 검증 결과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에서 6개로 증가하는 동안 BLRT의 경우, 모든 잠재프로파일 수에서 $p < .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LRT의 경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6개인 모형과 5개인 모형을 비교했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6개인 모형보다는 5개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값은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인 모형을 제외한 2개, 4개, 5개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잠재프로파일 분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2개~5개인 경우 모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비율의 기준치인 1%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을 위한 통계적 적합도 기준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 5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통계적 기준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잠재프로파일의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별 기술통계치는 표 4와 같고, Z점수를 기준으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유형1은 전체 16.7%가 속한 집단인데,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 추구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중목표 높은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유형2는 전체 31.7%가 속한 집단으로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 중에서 관계지향 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유형2는 ‘관계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유형3은 전체의 17.4%가 속한 집단인데, 생애목표 모든 하위 구성요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나 ‘다중목표 평균형’ 집단이라고 보았다. 넷째, 유형4는 전체의 31.8%가 속한 집단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생애목표 모든 하위 구성요인 추구 수준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유형4는 ‘다중목표 낮은형’ 집단으로 보았다. 마지막 전체 2.4% 소수 인원이 속한 유형5로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관계지향 추구 수준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에서 ‘관계 외면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통계적 기준 결과

(N=890)

기준		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보 지수	AIC	4120.421	3965.496	3808.852	3593.206	3561.722
	BIC	4182.707	4051.738	3919.051	3727.361	3719.832
	SABIC	4141.421	3994.574	3846.007	3638.438	3615.030
모형비교	LRT	.000***	.000***	.022*	.000***	.102
검증	BLRT	.000***	.000***	.000***	.000***	.000***
분류의 질	Entropy	0.884	0.788	0.841	0.881	0.894
분류비율 (%)	1	43.8	42.0	40.7	16.7	31.9
	2	56.2	38.9	37.8	31.7	2.4
	3		19.1	2.3	17.4	17.2
	4			19.3	31.8	0.7
	5				2.4	31.3
	6					16.5

* $p < .05$, *** $p < .001$

표 4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생애목표 하위 구성요인별 기술통계치

(N= 890)

	유형1 N=145 (16.7%)	유형2 N=288 (31.7%)	유형3 N=163 (17.4%)	유형4 N=273 (31.8%)	유형5 N=21 (2.4%)	전체 N=890 (100%)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여가와 안전	3.82 (.280)	3.37 (.395)	3.37 (.420)	3.08 (.349)	3.21 (.644)	3.35 (.450)
새로운 도전	3.53 (.461)	2.84 (.526)	2.99 (.471)	2.77 (.492)	2.83 (.532)	2.96 (.560)
관계지향	3.98 (.074)	3.91 (.119)	3.40 (.122)	3.00 (.095)	2.30 (.258)	3.51 (.466)
사회기여	3.78 (.221)	3.17 (.344)	3.16 (.385)	2.94 (.281)	2.65 (.375)	3.19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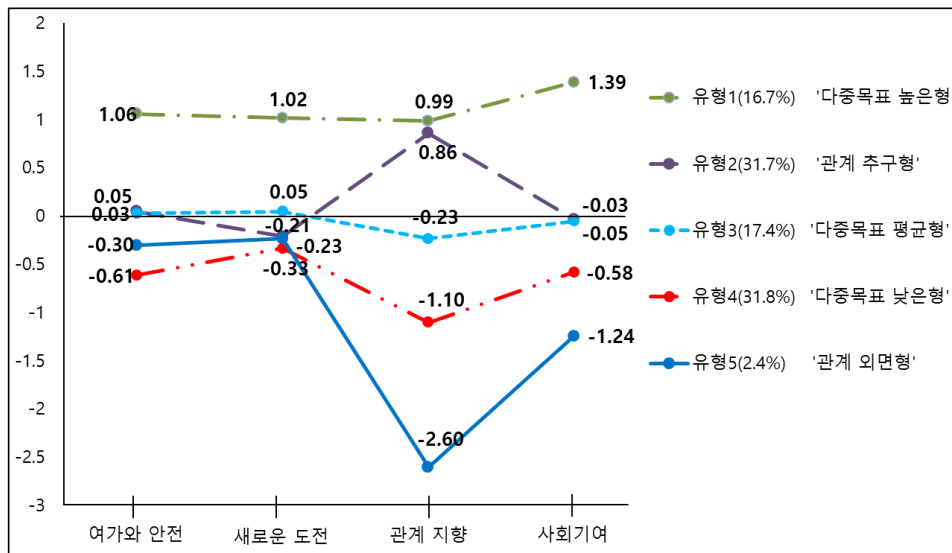


그림 1.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Z점수 기준)

3.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 분석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5개의 집단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일성 검증에서 $F(24, 35274.715) = 2.067, p < .000$ 으로 집단의 공분산행렬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Pillai's trace의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Pillai's trace = .088, $F(12, 2655) = 6.709, p < .000$, 부분 $\eta^2 = .029$ 으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의 다변량 효과는 유의하였다.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인별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검정(Tukey HSD)을 실시하여 비교했다.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잠재프로파일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우울 척도에서는 유형4(다중목표 낮은형) 집단이 유형2(관계 추구형) 집단과 유형1(다중목표 높은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 척도에서는 유형1(다중목표 높은형)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유형2(관계

추구형) 집단은 유형4(다중목표 낮은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 척도에서는 유형1(다중목표 높은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5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 (N= 890)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M (SD)	M (SD)	M (SD)	M (SD)	M (SD)	F	사후검증
우울	1.68 (.547)	1.76 (.512)	1.81 (.494)	1.96 (.518)	1.95 (.609)	8.771***	유형4 > 유형2, 유형1
자아 존중감	3.19 (.477)	3.02 (.435)	2.94 (.369)	2.85 (.391)	2.78 (.546)	18.473***	유형1 > 유형2 > 유형4 유형1 > 유형3, 유형5
삶의 만족도	3.09 (.650)	2.89 (.551)	2.85 (.519)	2.75 (.476)	2.71 (.661)	9.913***	유형1 > 유형2, 유형3, 유형4

*** $p < .001$

4.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의 예측요인 탐색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시기의 예측요인 검증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요인을 개인요인(성별,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성취가치)과 환경요인(민주적 양육태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의식)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관계 외면형을 준거집단으로 살펴본 결과, 개인적 예측요인에서는 성취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평균형에 속할 승산은 3.1배, 관계 추구형에 속할 승산은 3.1배,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은 2.9배 높았다. 환경적 예측요인에서는 민주적 양육태도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외면형보다 다중목표 평균형에 속할 승산이 2.8배 높았다.

다음으로 다중목표 낮은형을 준거집단으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인 경우 다중목표 낮은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1.7배 높았다. 또한, 진로정체감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은 2배 높았으며, 성취가치 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낮은형에 비해 다중목표 평균형, 관계 추구형에 속할 승산은 각각 1.54배, 1.53배로

확인되었다. 환경적 예측요인으로 교우관계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낮은형보다는 관계 추구형에 속할 승산이 2.2배로 높았다. 또한,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낮은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높았으며, 그 승산 확률은 1.8배이다.

다중목표 평균형을 준거집단으로 본 결과, 남학생인 경우 다중목표 평균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1.7배 높았으며,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평균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2.1배 높았다.

마지막으로 관계 추구형을 준거집단으로 본 결과, 개인적 예측요인 탐색결과, 남학생인 경우 관계 추구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1.5배 높았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추구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2.7배 높았다. 또한 환경적 예측요인에서는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추구형보다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1.8배 높았다.

표 6

잠재프로파일의 예측요인 검증 결과

(N= 890)

준거집단	비교집단	변수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관계 외면형	다중목표 평균형	성취가치	1.143**	.439	3.136
		민주적 양육태도	1.055*	.509	2.872
	다중목표 높은형	성취가치	1.138**	.425	3.121
		성취가치	1.084*	.438	2.956
다중목표 낮은형	다중목표 평균형	성취가치	.433*	.216	1.542
		성취가치	.428*	.186	1.534
	관계 추구형	교우관계	.790*	.312	2.203
		성별	.568*	.220	1.765
	다중목표 높은형	진로정체감	.703**	.225	2.019
		공동체의식	.603*	.258	1.828
	다중목표 높은형	성별	.559*	.240	1.749
		진로정체감	.745**	.246	2.106
관계 추구형	다중목표 높은형	성별	.431*	.213	1.539
		진로정체감	.730**	.220	2.075
		공동체의식	.600*	.249	1.821

* $p < .05$, ** $p < .01$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와 발달적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은 목표내용(여가와 안전, 새로운 도전, 관계지향, 사회기여)에 대한 추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중목표 높은형’, 관계목표가 뚜렷하게 높은 ‘관계 추구형’,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난 ‘다중목표 평균형’,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다중목표 낮은형’, 마지막으로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면서 관계추구목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관계 외면형’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는 청소년이 한 시기에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각의 목표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생애목표에 대한 다중목표 관점을 지지하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박은정 외, 2016; 정유지, 이은주, 2018; Milyavskaya & Werner, 2018).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 대부분이 자아정체감 발달단계에서 정체감 혼란이나 정체감 유예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류된 다중목표 낮은형은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다중목표 높은형, 관계 추구형, 다중목표 평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내용별 평균을 살펴보면 생애목표의 중요성을 보통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과 비교했을 때 추구 수준이 상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다중목표 낮은형으로 분류된 대학 신입생 집단에서도 생애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계 외면형은 심리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집단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 외면형이 대학이라는 전환기의 환경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류된 집단 유형인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분류되는 집단 유형인지에 대해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류한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목표가 어떤 하위목표를 추구하는지와 관계없이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김은석, 송경희, 2019; 정유지, 이은주, 2016).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개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심리적 부적응 변인에 해당하는 우울 수준은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다중목표 낮은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적응 변인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수준은 생애목표 추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다중목표 높은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목표의 인식 또는 지향정도가 확고할수록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정적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안혜진, 정미경, 2014). 또한 특정한 생애목표 하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생애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할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은석, 송경희, 2019; Keeton, Fenner, Johnson & Hayward, 2007).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 개의 생애목표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적이며, 특정한 생애목표 하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생애목표 추구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이 더욱 적응적인 양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애목표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은 개인의 정체성 발달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 달성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의 발달적 예측요인으로 먼저 성별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인 경우 다중목표 낮은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여학생인 경우보다 높았고, 다중목표 평균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 또한 여학생인 경우보다 높았다. 뿐만 아니라 관계 추구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여학생인 경우보다 높았다. 즉 여학생인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생애목표를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생인 경우 보편형에 비해 생애목표 추구형에 속할 승산이 여학생의 경우보다 2배 가깝게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은석, 송경희, 2019).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목표 낮은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 다중목표 평균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 관계 추구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승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정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효연과

길혜지(2017)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수준이 고목표형에서 가장 높았고 저목표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주어진 교육 과정을 단순히 이수해왔던 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대학생은 적응 및 진로발달에 능동적인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함께 성취가치는 본 연구에서 생애목표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이 강조되는 한국의 독특한 학업풍토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성취가치가 오히려 생애목표를 결정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민성, 조윤정, 2017). 특히 성취가치는 본 연구에서 분류된 관계외면형, 다중목표 낮은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생애목표 유형으로 발달하는데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업 중심의 교육환경과 학업영역에서의 경험과 가치들이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여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적응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민주적 양육태도는 관계 외면형에 비해 다중목표 평균형에 속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생애목표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성수, 2015; 김우리, 김정섭, 2016; 윤선아, 2016). 교우관계는 다중목표 낮은형에 비해 관계 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가 생애목표 추구 수준과 유형 분류에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많은 연구들과 일치한다(공계순, 서인해, 2016; 윤선아, 2016).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관계 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예측요인에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집단 유형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체의식 수준은 다중목표 낮은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 관계 추구형에 비해 다중목표 높은형에 속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지향, 관계지향 수준의 생애목표 뿐만 아니라, 사회지향 추구 수준의 생애목표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형성된 대학 신입생들이 심리적 적응을 가장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애목표 발달을 위한 교육적, 상담적 개입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전반적으로 생애목표 지향 수준이 낮으면서 관계지향 목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관계 외면형은 대학 생활 초기에 심리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학 신입생은 우선적으로 개별적인 상담개입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다중목표 낮은형의 경우는 성취가치, 진로정체감, 교우관계, 공동체의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 관계, 사회지향 수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과 집단상담이 병행되는 패키지 형태의 장기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중목표 평균형, 관계 추구형의 경우는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집단교육과 활동들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측에서는 진로 관련과목을 1학년 1학기 때 필수과목으로 개설,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대학 신입생의 진로정체감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개인지향 수준과 사회지향 수준의 생애목표 발달을 통합적으로 향상시켜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여자 대학 신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를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적 수준까지 통합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시기인 고등학교에서 진로정체감, 성취가치, 공동체의식과 함께 원만한 교우관계, 민주적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로서 개인중심 접근으로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뿐만 아니라,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는 대학 신입생의 자기보고식을 통해서만 측정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친구 등 주변 타인에 의한 보고를 통해 다면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과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대한 일부 변인만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생애목표는 여가와 안전, 새로운 도전, 관계지향, 사회기여

의 제한된 하위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가와 안전’의 내적 합치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해석 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하위 구성내용을 포함하고 검증된 생애목표 문항으로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생애목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할 때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행할 때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학업적 경쟁, 2학년부터 전공과정의 본격적 진입 등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학생 시기의 생애목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입학 전후의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을 분류 및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양상은 대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신입생과 전문대 신입생의 생애목표 잠재프로파일 비교 연구를 통해 대학 신입생의 생애목표 발달적 특성 이해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계순, 서인해 (2016).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관련 요인 및 생애목표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5(2), 1-26.
- 공인규 (2008). **Holland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민성, 조윤정 (2017).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목표와 생애목표와의 종단적 관계: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393-420. doi:10.22251/jlcci.2017.17.14.393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doi:10.17286/KJEP.2015.29.1.01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 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청소년발달 지표 조사 I: 결과 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우리, 김정섭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생애목표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671-690.
- 김은석, 송경희 (2019).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 잠재 프로파일: 발달적 영향 요인과 대학생활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103-125. doi:10.35574/KJDP.2019.06.32.2.103
- 김은주, 김민규 (2014). 대학신입생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29-56.
- 노현중,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55-375. doi:10.16983/kjsp.2014.11.2.355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남녀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4(3), 1-27.
- 박지은 (2018). **대학 신입생 여성의 가치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변화양상 탐색**.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현옥 (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11-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혜진, 정미경 (2014). 청소년의 학업자아개념, 내적동기, 부모지원이 미래목표를 매개로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0(2), 277-298.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민아, 허재은, 조윤정 (2019).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등
학교 시기 학업성취가치와 생애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4), 59-83.
doi:10.21509/KJYS.2019.04.26.4.59
- 윤선아 (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909-932.
- 이현주, 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doi:10.14816/sky.2014.25.2.173
- 인효연, 길혜지 (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9.
- 임성애, 이은주 (2016).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기결정성동기와 생애목표의 이질적 효과
및 예측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0(1), 85-110. doi:10.17286/KJEP.2016.30.1.04
- 임정아, 조아미 (2018).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1), 323-346. doi:10.14816/sky.2018.29.1.323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doi:10.15842/kjcp.2015.34.4.010
- 장희선, 윤정이 (2016).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정유지, 이은주 (2016). 대학생의 자기결정 동기유형과 생애목표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과학연구**, 47(4), 187-208. doi:10.15854/jes.2016.12.47.4.187
- 정유지, 이은주 (2018). 청소년기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2(1), 79-98. doi:10.17286/KJEP.2018.32.1.04
- 조은별, 윤영, 신종호 (2019). 대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목표 내용의 사회적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01-125. doi: 10.22327/kei.2019.37.3.101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 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doi:10.17286/KJEP.2016.30.4.06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연 (2016). 대학 신입생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교육종합연구**, 14(1), 271-295.
- 홍송이 (2018). **대학신입생의 첫 학기 전환 과정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M. L., Goodman, J., & Schlossberg, N. K. (2012).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Schlossberg's theory with practice in a diverse world* (4th ed.). New York: Springer.
- Brdar, I., Rijavec, M., & Miljković, D. (2009). Life goals and well-being: Are extrinsic aspirations always detrimental to well-being?. *Psychological Topics*, 18(2), 317-33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ley, A. M. (2012). Patterns of motivation beliefs: Combining achievement goal and expectancy-value perspectiv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1), 32-47. doi:10.1037/a0026042
-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Kim, Y., Lau, S., Ryan, R. M., Saunders, S., Schmuck, P.,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 (5), 800-816. doi:10.1037/0022-3514.89.5.800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2), 213-231. doi:10.1007/s11205-007-9138-y
- Jang, L. Y., & Liu, W. C. (2012). 2 × 2 achievement goals and achievement emotions: A cluster analysis of students' motiva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7, 59-76. doi:10.1007/s10212-011-0066-5
-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doi:10.1111/j.1751-9004.2007.00054.x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doi:10.1037/0022-3514.65.2.410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doi:10.1177/0146167296223006
- Keeton, K., Fenner, D. E., Johnson, T. R., & Hayward, R. A. (2007). Predictors of physician career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and burnout. *Obstetrics and Gynecology*, 109(4), 949-955. doi:10.1097/01.AOG.0000258299.45979.37
- Milyavskaya, M., & Werner, K. M. (2018). Goal pursuit: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anadian Psychology*, 59(2), 163-175. doi:10.1037/cap0000147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291-306. doi:10.1016/j.jrp.2008.09.00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Palfai, T. P., Ralston, T. E., & Wright, L. L. (2011). Understanding university

- student drinking in the context of life goal pursuits: The mediational role of 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169-174. doi:10.1016/j.paid.2010.09.020
- Petras, H., & Masyn, K.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In A. Piquero & D. Weisburd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pp. 69-100). New York: Springer.
- Pintrich, P. R., & Schunk, D. H. (200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Ratelle, C. F., Guay, F., Vallerand, R. J., Larose, S., & Senécal, C. (2007). Autonomous, controlled, and amotivated types of academic motivation: A person-oriented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4), 734-746. doi:10.1037/0022-0663.99.4.73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i:10.1515/9781400876136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New York: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heldon, K. M., & Kasser, T. (1998). Pursuing personal goals: Skills enable progress, but not all progress is benefici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319-1331. doi:10.1177/01461672982412006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Van Hiel, A., & Vansteenkiste, M. (2009). Ambitions fulfilled? The effect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 attainment on older adults' ego-integrity and death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8(1), 27-51. doi:10.2190/AG.68.1.b
- Vansteenkiste, M., Niemiec, C. P., & Soenens, B. (2010). The development of the

five mini-theorie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historical overview, emerging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T. C. Urdan, & S. A. Karabenick (Eds.), *The decade ahea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p. 105-165). London, UK: Emerald Group Publishing. doi: 10.1108/S0749-7423(2010)000016A007

Williams, G. C., Cox, E. M., Hedberg, V. A., & Deci, E. L. (2000). Extrinsic life goals and health-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756-1771. doi:10.1111/j.1559-1816.2000.tb02466.x

Wormington, S. V., & Linnenbrink-Garcia, L. (2017). A new look at multiple goal pursuit: The promise of a person-centered approa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9(3), 407-445. doi:10.1007/s10648-016-9358-2

ABSTRACT

Exploring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redictors relating to latent profiles of college freshmen's life goals

Kwon, Eunyoung* · Chung, Hyunhee*

The present study sought to categorize the latent profiles of college freshmen's life goals, and to explor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redictors relating to such latent profiles. Data were collected from 890 college freshmen, who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of 20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tent profiles of college freshmen's life goals we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these being: 'high multiple goals', 'relation oriented', 'average multiple goals', 'low multiple goals', and 'relation-neglected'.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relating to the latent profiles of college freshmen's life goals. Thirdly, the predictive effects of gender, career identity, attainment value, democratic attitudes in parenting, peer relations, and community spirit we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to improve college freshmen's life goals are discussed.

Key words: college freshmen's, life goals, latent profile, psychological adjustment, predictors, KCYPS 2010

투고일: 2021. 6. 6, 심사일: 2021. 8. 12, 심사완료일: 2021. 9. 2

* Keimyung University